

# 광양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 ‘글썸?’

### 사업비 규모 1,800억원대...재원대책 ‘안갯속’

### 시의회 “민자로 하라” 시 “꼼꼼히 따져 보겠다”

광양시가 민선7기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 사업의 성격과 자금조달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총사업비 규모가 1,800억원(부지매입비 300억 포함)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시의 재정부담 등을 감안,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시의회 일부 의원들 또한 이 같은 주장을 펴고 있어 향후 추진과정에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정현복 시장의 민선7기 핵심사업중 하나인 어

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광양시 황길동 일대에 오는 2022년까지 450억원을 투입, 1단계 국비보조 및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단계 사업을 민간투자과 병행 추진한다는 구상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규모가 무려 1,800억원에 달한다는 것 말고는 하드웨어, 즉 시설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설립후 그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

인 구상이 아무 것도 마련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단계 사업 이후 1,000억원이 넘는 2단계 사업을 위한 자금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는 막연히 민간투자과 병행한다는 구상 외에 민간투자를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로 유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안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이 자칫 논란속에 ‘빈 공약’으로 남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4일 광양시의회의는 의

원간담회를 열고 광양 어린이테마파크 조성사업 현황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자금조달 방법 등을 주문했다.

의원들은 테마파크를 경영 수익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복지시설로 운영할 것인지를 용역단계에서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시설운영을 직영으로 할 것인지, 민간 위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용역단계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자본 마련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는 테마파크가 대부분 전문성을 갖춘 대기업들이 운영하고 있음에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만큼 시가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시는 인프라 구축 등 행정적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문병한 안전도시국장은 “전국의 여러 테마파크가 활성화된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다”며 “각지의 사례들을 꼼꼼히 벤치마킹하고 따져본 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현재 대상부지 20만 평중 40%인 8만평에 대한 1차 토지매입을 끝냈으나 나머지 부지에 대한 재원은 대책이 없는 상태다.

/동부취재본부=이두현·정경화 기자

## 여수 개방형직위 감사관

### 23~29일까지 공모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5급 상당 감사관(개방형직위)을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한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업무 관련 높은 전문성을 가진 우수인재를 채용해 소통·공감하는 청렴여수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감사관 응시를 위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판사·검사·변호사·공인회계사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 공무원 등이다.

임용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5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응시희망자는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시 총무과(061-659-3122)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절차와 제출서류 서식 등은 시 홈페이지(www.yeosu.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방형 감사관제는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능한 인재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곽재영 기자



구례동편소리축제 성료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열린 '2018 구례동편소리축제'와 '제22회 송만갑 판소리 고수대회'가 전통과 즐거움을 충족시키는 대표 국악축제로 자리매김했다. /구례군 제공

## 구례군, C형간염 무상 검진·치료 지원

### 대한간학회와 협약... 내년까지 주민 3천여명 대상

구례군(군수 김순호)이 대한간학회(이사장 양진모)와 함께 C형간염 무상 검진 및 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C형 간염은 혈액매개 바이러스 감염 질환으로 장기간에 걸쳐 70~80%가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고 간경변증, 간암 등으로 급속히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A·B형간염과 달리 백신이 없고 무증상으로 진행되어 검진을 받지 않으면 방치하기 쉬운 무서운 질환이다.

구례군은 최근 자체적으로 주민 250명을 대상으로 C형간염 조기발견 사업을 추진해, 2명의 양성 환자를 발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오는 20일 대한간학회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C형간염 확진 환자가 완치되는 2019년 4월 30일까지 지역 주민 3,000여명을 대상으로 검진 및 치료 지원을 해줄 방침이다.

‘대한간학회가 간(肝)다’ 캠페인의 일환인 이번 사업의 시작으로 사전접수 주민 350명을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통해 B·C형간염 항체검사 및 간기능 검사, 빈혈 검사를 실시하며, 간의 날인 오는 20일에는 간 건강 강좌, 간 건강 진료 및 고위험군 대상 간 초음파 검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김진석 기자

## 광양농협,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 선정

광양농협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은 친환경 농업을 확산하고, 농업생태계의 보존과 유지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광양농협은 미곡처리장 시설 내 저장시설이 파장치 않아 산물벼수매(건조과정), 보관, 도정에 불필요한 비용과 수매대기 시간이 길어 농가의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에 확보된 사업비 13억5,000만

원은 벼 유통·저장시설과 장비를 확충하는데 사용된다.

광양농협은 이번 저장시설 확충으로 운송비 부담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양농협 관계자는 “광양전체 친환경 벼를 수매해 농가소득의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정경화 기자

## 기저수첩

### 여수국가산단 ‘잠자는 화약고’

여수국가산업단지(이하 여수산단)에서 화재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안전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4일 오전 11시 16분께 여수시 중흥동 산단 내 화력발전소 대형저장고(사일로) 야외작업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현장에 있던 근로자 한 명이 숨졌고, 3명이 다쳐 병원에 이송됐다. 화재는 석탄을 보관하는 저장고 바로 옆에서 발생했으며, 전력 공급 시설은 정상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7시 6분께 여수산단 한 실리온 제조공장의 원료공급 배관에서도 화재가 났다. 자체 소방대가 화재발생 5분 만에 불길을 잡았고, 인명피해는 발생 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실리온 분말을 공급하는 배관에서 원료가 분출되면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여수산단 내 사고는 어제 오늘 일



곽재영 동부취재본부

이 아니다. 1967년 조성된 여수산단은 그동안 시설노후화 등에 따른 잦은 사고로 우려를 샀다.

지난 2015년~2017년 3년간 총 64건의 화재·폭발·위험물·가스안전 사고 등이 발생했다. 이중 화재와 안전사고가 각각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스 6건·위

험물 5건·폭발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의 주요 원인은 시설노후화와 안전부주의 등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 44명의 인명피해를 냈으며, 이중 7명이 사망했다. 재산피해는 23억1,232만원에 달했다. 소방서에 접수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한 사건을 포함할 경우 사고 건수 및 피해액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조성된 지 50년이 넘는 여수산단, 시설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각종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피해 또한 늘고 있다. ‘잠자는 화약고’ 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 고흥 간부 공무원 혁신워크숍

고흥군은 지난 12일부터 이틀 동안 곡성 강빛마을에서 군 간부와 담당급 공무원 1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기 혁신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민선 7기 송 군수 취임 직후 행정의 불합리한 관행 철폐와 공무원 혁신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공직사회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성과소와 읍·면의

담당급 이상 공직자들부터 변화와 개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혁신 마인드 및 진정성의 함양, 리더십 향상 등을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창의와 혁신’, ‘조직의 변화’를 주제로 한 역량강화 리더십 교육과 팀별 과제 토의·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동부취재본부=김진석 기자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 본부 061 - 743-4200
- 여수 010-8648-1236
- 광양 010-3622-9898
- 순천 010-2547-7890
- 구례 010-5431-4006
- 곡성 010-6764-6100
- 고흥 010-9151-2828
- 보성 010-3601-2060

## 클릭! 고흥 소식



### 곡성 양봉농장 현장 교육

곡성군은 최근 곡성명품농업대학 양봉반 교육생을 대상으로 목사동면 정동하 교육생 양봉농장에서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교육은 경기도에서 양봉업을 하고 있는 오백영, 한미현 양봉박사가 강사로 나서 월동벌 관리, 벌벌 양육 등에 대해 강의했다. 강의 후 교육생들은 양봉 사육과 관련 질의 응답이 이어졌으며, 교육생 간에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했다. /동부취재본부=한정길 기자



### 순천 지역사회보장계획 우수상

순천시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건복지부 주관 ‘2017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매년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이행 및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평가한다. 시는 찾아가는 통합 보건 복지서비스를 운영해 복지안전망을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동부취재본부=박경식 기자



### 보성 겸백면민의 날 행사 열려

보성군 겸백면의 ‘제12회 겸백면민의 날’ 행사가 지난 14일 김철우 군수를 비롯한 황주홍 국회의원(민병당)과 김승남 지역위원장(민주당),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면민회관 광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식전행사로 겸백초등학교 학생들의 바이올린 연주와 농악놀이 등이 이어 장혜운 향우회장에게 감사패 전달,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수여했다. /동부취재본부=김근중 기자



### 구례경찰 ‘제복입은 시민’ 실천 논의

구례경찰서 15일 청내 산수마루에서 ‘제복입은 시민 실천 방안’ 논의를 위해 각 과장, 파출소장, 계·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제복입은 시민’으로서 구례경찰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취지에 맞는 각 기능별 활동사안 점검과 실천방향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식 서장은 “민·관·경이 함께하는 지역치안협의회가 최선을 통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김진석 기자